

건설사 6·25구조조정 후폭풍 하도급 업체들 부도 공포

유동성 위기 줄도산 우려... 내달 中 小 企 新 용 평 가

지난 25일 채권은행들이 16개 건설사에 대해 구조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지경탄을 맞은 건설업체는 물론 업계 전반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6·25 건설사변'이라 부를 정도다. 여기에 다음달부터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또 한차례 폭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관측된다.

◇대형·중소 건설사 양극화 심화 = 우선 퇴출 무머가 일단락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불안해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전화문의가 빗발치는 등 계약자 이탈

을 우려하고 있다. 미분양 판매에도 비상이 걸렸다. 가뜰이나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 해소가 힘든 상황에서 악재가 하나 더 추가됐다.

신규 수주도 어려워지고, 건설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 중소 건설사는 자금조달도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 간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협력업체 '줄도산' 우려 = 종합건설사의 퇴출은 하도급 및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국도해양부에 따르면 300위권 건설사의 업체당 하도급 업체는 평균 250개로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업체가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300대 건설사의 10%(30곳)가 워크아웃 또는 부도 처리될 경우 협력업체 3548개사에서 2조1599억원의 피해와 1335개 하도급 업체가 줄도산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내놨다.

◇광주·전남 피해 미미 = 지난해 1, 2차 구조조정에서 10개 업체가 C, D 등급을 받은 광주·전남에서는 올해 C 등급은 한 곳도 없고, D등급은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간 금광기업과 남진건설로 알려져 파장은 크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다만 C등급을 받은 백산건설과 진흥기업 등이 광주·전남에서 주택사업을 벌여 입주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주택경기로 침체로 미분양이 늘면서 임대료 전환한 가구가 상당수여서 피해가 우려된다.

◇구조조정 '칼날' 중소기업으로 = 이제 칼날은 중소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신용위험평가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지난 14일 신용공여액 30억~500억원 미만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동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대기업 구조조정이 업종별 '기획성'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되면서 건설 등 관련 업계에 큰 후폭풍을 몰고 온 데 반해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는 과급력이 그보다 약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하반기 출구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부분보증 비율을 낮춘 데다 일시적 대출 연기연장 조치도 원상복구해 한계기업의 줄도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광산업 진흥회 LED 체험관 인기



광주 첨단산단 내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허영호·LG이노텍 대표)가 운영하는 LED체험홍보관이 과학꿈나무들의 현장체험학습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사진>

27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현재까지 광주 첨단산단 내 에너지관리공단 호남지역기후변화센터 1층에 개관한 LED체험홍보관을 찾은 방문객이 8400여명에 달했다. 특히 LE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는 8월까지 단체방문 예약이 마감되는 등 차체과 과학꿈나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방문객들은 성인과 대학생이 60%, 청소년 11%, 초등·유아 25%, 외국인 4%였다.

500㎡ 규모의 LED체험홍보관은 8월말까지 단체방문 예약이 마감되는 등 차체과 과학꿈나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구성돼 있다. LED교통신시스템, 태양광-LED융합 버스승강장, 라이트테라피(LightTherapy), 차량용 LED조명 등 LED조명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교육의 장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화순 제일건설(주)·무안 대선건설(주) “정상”

당국 구조조정 명단 비공개 이름 같은 업체 피해 호소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데도 채권은행들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시장의 혼란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이름이 같은 업체들은 수백통의 전화문의를 받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7일 광주·전남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채권은행들이 발표한 구조조정 건설업체는 C등급(워크아웃) 9곳과 D등급(퇴출 또는 법정관리) 7곳이다. 광주·전남 업체로는 이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금광기업과 남진건설이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북 익산의 (주)제일건설(C등급)과 서울 대선건설(D등급)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인되면서 이들 기업과 이름이 같은 화순의 제일건설(주)과 무안의 대선건설(주)이 유탄을 맞고 있다.

화순의 제일건설(주)은 올해 신용평가에서 정상 등급을 받았는데도, 익산의 (주)제일건설과 혼동을 일으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전화문의가 잇따르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은행인 광주은행은 최근 내부 통신망에 이 회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

지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화순의 제일건설(주)은 인천 청라지구에 1071가구의 '풍경채' 아파트를 성공리에 분양하고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 중이며, 광명 제일 풍경채는 오는 9월 말 입주 예정이다.

제일건설(주) 관계자는 “최근 인천 청라지구와 경기 광명 등 수도권 분양에 성공했고 재무구조도 탄탄한 중견 회사 이름이 같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구조조정 대상 업체와 무관,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의 대선건설(주)도 지난 25, 26일 수백통의 전화문의에 곤욕을 치

렀다. 무안의 대선건설(주)은 시공능력순위 전국 380위, 광주·전남 40위로 영산강·낙동강 살리기 등 관공 토목공사로 주로 하는 건설사다. 반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업체는 롯데관계사인 서울의 대선건설(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안 대선건설(주) 관계자는 “시공능력 380위로 이번 평가 대상도 아닌데 회사 이름이 같아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히 불안을 느낀 하청업체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회사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美 경기지표 등 해외 변수

보험·자동차株 상승 주시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실업률,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의 제조업지수 등 굵직한 경기 지표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전반적으로는 이전보다 성적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는 지난달 일회성 고용요인이 사라진 후 일자리 감축이 전망돼 시장의 우려가 커질 수도 있다.

그러나 ISM제조업지수가 전월보다 둔화되도 여전히 확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이종경 기점체의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 만큼 이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악재와 미국의 금융규제안 등도 주의 대상이다. 미국의 금융규제안이 확정되는 등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장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증시의 불안요인은 국내 증시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지난 25일에도 외국인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만 1500억원 이상 순매도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의 원인을 제공했다. 여전히 외국인 매매에 영향을 주는 해외변수가 우호적이지 않은 탓에 당분간 코스피 지수의 박스권 돌파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상대적으로 지수 급락 가능성도 크지 않다. 연기금이 순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펀드환매에 따른 부정적인 부분을 상쇄해 주고 있다.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미국, 유럽과는 달리 국내 경기전망치는 상당히

정 되는 등 회복의 온도차가 있어 해외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수 선방 현상은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주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은 현 지수를 중심으로 박스권 등락이 예상되며, 종목별 움직임은 여전히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최근 급리 인상 수혜인 보험·자동차·화학 종목 중 선두주와 일부 선도 IT종목이나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이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충정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해포점 (061) 262-9200
덕산점 (063) 851-2422

제주도 가 더 가까워집니다.

7.16 - 6.22

새로운 제주관광 1박2일 149,000-

달콤한 제주관광 2박3일 179,000-

시원한 제주관광 1박2일 289,000-

내방대로 자유여행 2박3일 199,000-

상品한 제주여행 2박3일 189,000-